

분단극복위해 여성 앞장서야

도쿄서 만난 남북한 여성대표 6명 좌담회

최근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우정 신민당 수석최고위원, 려연구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남북한 여성대표 6명은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해 여성들이 할 일, 남과 북의 여성과 생활 등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분단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남북한 여성대표들이 이번 심포지엄기간 동안인 지난달 29일의 기자회견, 30일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한겨레신문> 주최 좌담회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담 내용을 발췌·요약했다. <편집자>

이우정=분단 46년 만에 북한 여성대표들을 만나 여간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분단과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데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여성들이 앞장섰으면 해요.

려연구=그래야지요. 남과 북의 여성들이 힘을 합쳐 꿈에도 그리던 '조국통일'을 이뤄야 해요.

이효재=이번 만남이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려=이화여대 동문 사이인 남한대표 3명과 제가 분단 46년 만에 반갑게 만났듯이 이번 만남이 통일을 위한 발자국이 될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혼자 굴러가지 않습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힘으로 절반이 굴러가는 거지요.

이우=북한에선 여성이 정치권 고위층에 어느 정도 진출해 있나요.

려=최고위원 6백87명 가운데 여성이 1백38명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우=우리 0.2%인데 10배나 되는군요. 요즘 우리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여성들이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광역의회 등에 도전하고 있어요.



통일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남북한 여성 대표들. 왼쪽 둘째부터 정명순, 이효재, 려연구, 이우정 윤정옥 대표.

남 서로 바로알기운동부터 추진을 북 '로동신문' 통해 남한소식 들어

정명순=<로동신문>에서 왔어요. 그런데 여성후보를 위해 기금을 모은다는 소식을 보고 놀랐어요. 선거하는 데 돈을 써야 하나요?

려=정말 이해가 안돼요. 지역 활동을 착실히 한 사람을 뽑으면 될텐데 왜 돈을 쓰지요? 우리는 동단위의 행정구역별로 각 지역 대표를 뽑는 주민회의를 열어 후보를 추천한 다음 지지·반대토론을 벌입니다. 진짜로 '인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죠.

이효=여성의 취업률은 어떤가요.

정=전체 '노력구성'(취업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6·25 직후엔 더 높았는데 여성의 정

년·퇴직연령이 남성보다 빨리 줄어든 거죠.

이효=정년은 몇살인가요?
려연구=여성은 55살, 남성은 60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더 다닐 수 있습니다.

이우=정년 뒤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많은가요?

정=대부분 계속 다닙니다.

이효=나이에 제한은 있습니까?
정=없어요. 기혼여성에게 출퇴근시간을 배려해주고, 아이가 셋이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이효=가정의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려연구=남한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갖고 있어요. 맞벌이부부의 경우 간혹 남편이 자기 쓸 뭇을

미리 떼놓고 조금 갖다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이효=북한에도 여성문제에 대해 공부하는 '여성학' 강좌가 있습니까. 남쪽엔 70년대말부터 여성학이 학문으로 자리잡고, 여성노동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정=북한에선 8·15 직후 '여성해방'이 이뤄져 여성학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한 대표단이 평양에 올 기회가 있으면 여성학에 대해 강연을 해주십시오.

이우=북한에선 여성운동이 여성해방, 여성의 의식변화 차원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부장제 문화가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들려주세요.

윤정옥=남쪽에선 80년대 중반부터 정신대문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정신대' 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정=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려연구=저는 이번에 윤 선생님을 통해 일제 식민지배 아래서 '조선여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듣고 무척 가슴아팠습니다. 전후에 태어난 새 세대로서 '인민'이 주권을 갖도록 남북 여성이 힘을 모아 분단을 극복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어요.

이우=그러기 위해선 남북이 서로 바로알기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에 대해 단편적으로 보고 듣고 있는데, 그쪽에선 어떤지요.

정=북한에선 <로동신문> 5면이 남한소식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남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우=탁아제도, 산전·산후 휴가제도 등 여성복지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생활에선 가부장제 문화가 얼마나 타파됐는지 궁금합니다.

정=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로동신문> 4면에 '남성을 바로 알아야 여성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해서 4면을 '남성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남쪽 신문들이 많이 다루는 여성면과 대비되는 셈이지요.

이우=이번 만남을 계기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교류의 폭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려=그동안 정치·체육부문은 교류도 많이 하고, 통일팀도 만 들어졌는데 여성부문만 '한가'했어요. 각 분야의 여성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많이,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이우=그쪽에서 서울에 한번 오십시오.

려=남에서도 평양에 들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봅시다.

이효=분단이 빚어낸 여성들의 절곡의 삶을 건어내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이해·화합하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쿄=신연숙 특파원 정리>